



〈건강한 DC 유통 환경 만들기〉 우리학교 시험문제 저작권은 누구에게?

중·고교의 중간 및 기말고사 문제를 입수, 이를 인터넷에서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 및 책자로 편집하여 판매한 업체가 있다. 이에 일부 교사들이 저작권 침해라며 서비스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이 고지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때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또한 저작권 침해여부 및 보상 수준은 어떻게 결정될까.

Q1 교사들이 출제한 문제들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A1 교사들이 출제한 시험문제의 저작권이 학교법인의 것인지 교사개인의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요건 상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인지의 여부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시험문제가 학교법인의 명의로 일반인들에게 '공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시험문제로 주어진 것이며 '공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인' 명의로 공표된 것인지 문제가 된다.

위와 같은 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 귀속이 문제되는 이유는 만약 학교법인에게 귀속된다면, 기업의 경우 학교법인과 저작물이용허락계약 등을 체결해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교사 개인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보면, 교사 개인을 상대로 저작물이용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의 규정]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하 '단체명의로 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2 위 문제들을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A2 실제 서울지방법원에서는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잡

지 및 서적에 시험 문제를 복제하여 사용한 것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따라서 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온라인에서 이른바 '죽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① 정당한 사용 여부

공표된 저작물은 교육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는바, 사용 업체가 온라인에서 기출 문제를 제공하는 것은 이미 시험출제를 통해서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의 목적으로 정답 및 해설과 함께 인용하였을 뿐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물론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방송 또는 전시 그리고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학교에서 시험 문제지를 배포하는 것도 공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업체에서는 이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단지 교육의 목적만 있다고는 볼 수 없다.

② 손해액의 산정

학교 교사나 학교가 출제된 시험문제에 대하여 저작권을 행사하여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사용료)에 상당하는 액을 학교 교사나 학교가 입은 손해액이라고 할 경우, 이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학교의 시험문제는 원래 유상으로 제공될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통상 유상으로 만들어지는 문제집 등에서 문항 당 제공하는 출제료 등을 기초로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